

S지역 치위생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신선행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A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S Area

Seon-Haeng Shin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ahmyook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학업 및 진로진도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치위생과 재학생 245명을 임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카이검정, 독립표본 평균 검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았고, 입학 전형은 유의하지 않았다. 치위생 전공 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관련요인을 제시함으로써 학업 및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대학생, 대학생활적응, 입학전형, 치위생, 학업성취도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S area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academic and career guidance.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45 dental hygiene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analyzed by frequency, chi-square test, t-test, regression using SPSS 21.0. As a result, The higher the grade, the academic achievement, the higher the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admission typ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presenting the factors related to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I think that it can help develop academic and career guidance related programs.

Key Words : College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Admission types, Dental hygiene, Academic achievement

1. 서론

최근 출산을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대학선택의 다양화, 청년실업 증가, 대학구조평가를 통한 대학정원 감축 등 사회적 변화가 있어왔다. 따라서 21세기 대학 교육 정책은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자체평

가제와 혁신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적극 추진 하고 있다 [1]. 한편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학생들은 학과전공에 대한 자신의 적성이나 재능보다는 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2]. 학업성취도는 학교 교육을 통한 학업적 요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학교적응능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에게는 학업 이외의 많은 과업이 주어지고 있으나 대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Health University Academic Research Fund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Seon-Haeng Shin(haeng5355@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7, 2020

Revised November 16,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학생생활에서 학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발달로 다양한 교육 매체를 통하여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자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 과거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 방식은 리더십, 잠재력, 사회력을 평가하는 질적교육과는 동떨어져 있으며[4], 중도탈락률, 자퇴율 증가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몰입도도 떨어질 수 있다[5].

송[6]은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입시전형에서 정시전형보다 수시전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했고, 이[7]는 대학 성과와 고교 성적 간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관련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은 입시제도가 다양해지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서 개인의 정서, 학업, 대인관계 등 대학생활 요구에 잘 대처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사회 적응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짜증, 분노, 우울, 불만족 등과 같은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사고로 인하여 편입, 전과, 재수, 휴학 등의 현상이 생기며 이것은 개인, 가족,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으로 유능한 인적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8]. 구강질환의 예방, 위생,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치과위생사는 양질의 구강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치위생 학생들은 다양한 교내실습, 교외 임상실습 등 과중한 학습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시험을 비롯하여 전문직에 필요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대학생활 적응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진로 지도 및 학업 중도 포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S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치위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임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에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선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0.15,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로 하여 최소 표본수 138 명이 산출되었으나 탈락율을 고려하여 245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3문항, 학업성취도 1문항, 대학생활적응 47 문항,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업성취도 측정기준은 연구 직전학기 평균평점(GPA)으로 하고 평균평점 3.0미만은 '학업성취도가 낮다', 3.0 이상은 '학업성취도가 높다'로 평가하였고, 대학생활적응 측정도구는 Baker와 Sirky[10]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SACQ)를 권[11]이 사용한 것을 본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문항 평가 방법은 개인정서적응(10), 학업적응(19), 사회적응(13), 환경적응(5)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부적응 내용의 문항들은 역산한 후 산출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test 결과 0.906으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자료는 IMB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업성취도, 대학생활적응은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대학생활적응 차이 분석은 카이검정,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3.7%, 여자 96.3%, 학년별로는 1학년 32.2%, 2학년 39.6%, 3학년 28.2%이었고 입학전형은 수시 35.5%, 정시 64.5%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45)

Characteristics	Division	N(%)
Gender	Male	9(3.7)
	Female	236(96.3)
Grade	1	79(32.2)
	2	97(39.6)
	3	69(28.2)
Admission types	Occasional	87(35.5)
	Regular	158(64.5)

3.2 연구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대학생활적응

연구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분포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학업성취도 낮음군 25.7%, 높음군 74.3%를 나타내었으며 대학생활적응 전체 평균은 3.18이었고, 하부영역 요인에서 개인정서적응 3.00, 학업적응 3.13, 사회적응 3.23, 대학환경적응 3.37로 조사되었다.

Table 2.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tudy population

Characteristics	Division	N(%)
Academic achievement	Low	63(25.7)
	High	182(74.3)

Table 3. The college life adaptation, of study population

Variables	Substructure	Mean±SD
College life adaptation		3.18±0.41
	Personal emotion adaptation	3.00±0.57
	Academic adaptation	3.13±0.40
	Social adaptation	3.23±0.46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3.37±0.69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대학생활적응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분포는 Table 4와 같다. 성별 분포를 보면 학업 성취도 낮음군에서는 남자 6.3%, 여자 93.7% 이었고, 높음군은 남자 2.7%, 여자 97.3 %로 양군 간에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학년별 분포는 낮음군에서는 1학년 55.6%, 2학년 30.2%, 3학년 14.3%이었고, 높음군은 1학년 24.2%, 2학년 42.9%, 3학년 33.0%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입학전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 낮음군에서는 수시전형 36.5%, 정시전형 63.5%이었고, 높음군은 수시전형 35.2%, 정시전형 64.8%로 양군간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Table 4.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Academic achievement				χ^2	P
		Low		High			
		No.	%	No.	%		
Gender	Male	4	6.3	5	2.7	1.716	0.241
	Female	59	93.7	177	97.3		
Grade	1	35	55.6	44	24.2	21.997	0.0001
	2	19	30.2	78	42.9		
	3	9	14.3	60	33.0		
Admission types	Occasional	23	36.5	64	35.2	0.037	0.879
	Regular	40	63.5	118	64.8		

* P-value by chi-square test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분포는 Table 5와 같다. 성별에 따른 전체 대학생활적응은 남자 3.46, 여자 3.17이었고($p < .005$), 개인정서적응은 남자 3.61, 여자 2.98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01$), 학업적응,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은 양군에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학년별 대학생활적응, 개인정서적응, 학업적응, 사회적응은 집단간에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고, 대학환경적응은 1학년 3.25, 2학년 3.34, 3학년 3.5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입학전형별 대학생활적응, 개인정서적응, 학업적응, 사회적응은 집단간에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고, 대학환경적응은 수시전형 3.53, 정시전형 3.28로 수시전형이 정시전형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Table 5. College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ollege life adaptation	Personal emotion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Gender	Male	3.46±0.59	3.61±0.68	3.35±0.55	3.23±0.67	3.66±0.71
	Female	3.17±0.40	2.98±0.56	3.12±0.40	3.23±0.45	3.36±0.69
	t or F (p-value)	2.088 (0.038)	3.277 (0.001)	1.638 (0.103)	0.019 (0.985)	1.306 (0.193)
Grade	1	3.16±0.35	3.01±0.55	3.18±0.30	3.20±0.43	3.25±0.70
	2	3.17±0.48	3.04±0.65	3.09±0.45	3.22±0.49	3.34±0.70
	3	3.23±0.37	2.93±0.48	3.15±0.44	3.28±0.44	3.54±0.62
	t or F (p-value)	0.519 (0.596)	0.703 (0.496)	1.164 (0.314)	0.559 (0.573)	3.302 (0.038)
Admission types	Occasional	3.22±0.43	2.93±0.65	3.17±0.39	3.25±0.49	3.53±0.74
	Regular	3.16±0.40	3.04±0.52	3.11±0.41	3.22±0.44	3.28±0.64
	t or F (p-value)	-1.044 (0.297)	1.291 (0.199)	-1.059 (0.291)	-0.503 (0.615)	-2.714 (0.007)

3.4 학업성취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분포는 Table 6과 같다. 전체대학생활적응은 학업성취도가 낮음군 3.07, 높음군 3.22로 높음군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하부영역요인에서 학업적응은 낮음군 3.03, 높음군

3.17(p<.05)이었고, 대학환경적응은 낮음군 3.16, 높음군 3.44(p<.01)로 조사되어 각각 학업성취도 높음군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정서적응, 사회적응은 각각 양군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Table 6. College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academic achievement

Variables		College life adaptation	Personal emotion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College environment adaptation
Academic achievement						
	Low	3.07±0.36	2.92±0.54	3.03±0.36	3.15±0.42	3.16±0.69
	High	3.22±0.42	3.03±0.58	3.17±0.41	3.26±0.47	3.44±0.67
	t or F (p-value)	-2.573 (0.011)	-1.220 (0.224)	-2.243 (0.026)	-1.582 (0.115)	-2.740 (0.007)

3.5.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적응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5), 모형설명력은 6.0%로 나타났다. 선정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더미(t=2.598, p<.05)은 정(+)-적 영향을 주었고, 학업성취도더미(t=-2.672 p<.01)는 부(-)적 영향을 주었다. 즉 남자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았다.

Table 7.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life adaptation

Variables	B	SE	β	t	p-value	Academic achievement
(constants)	3.307	.063		52.571		.000
Gender_dummy	.364	.140	.166	2.598		.010
Grade_dummy 1	-.034	.070	-.039	-.493		.623
Grade_dummy 2	-.072	.065	-.086	-1.117		.265
Admission types_dummy	-.078	.055	-.091	-1.432		.153
Academic achievement_dummy	-.166	.062	-.176	-2.672		.008
R ² = 0.060 Adjusted R ² = 0.041 F= 3.060 P=(0.011)						

* p-value by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4. 고찰

최근 경제위기로 비롯된 사회적 불안정은 높은 실업률과 함께 대학사회까지 파급되어 대학생들의 학업, 진로, 취업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1]. 학생들의 학교선택이나 학과전공에 대한 부적응으로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치위생 학생들은 전공분야에 대한 학습 스트레스, 교외실습 부적응, 면허취득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12].

학습은 대학생활적응이나 심리적 안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다수의 치위생학생들은 치위생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학습을 시작하기 때문 대학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업성취도는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습한 지식, 지적 능력, 태도와 가치관 등 학습결과이다. 또한 대학이 입학적격자를 선발하여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로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한다[13].

우리나라 대학 입학전형은 모집 시기에 따라 수시와 정시로 구분한다. 수시전형은 정시전형을 제외한 기간에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간과 모집인원을 정하여 학생부, 대학별 고사, 서류 등 다원화된 전형 요소를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정시전형은 수시전형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주로 수능능력시험 성적 중심으로 선발한다[14].

본 연구 대상자의 학업성취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입시전형에서는 수시전형, 정시전형 양군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인문사회, 자연공학 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13]와 수도권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신[15]의 연구결과와는 비슷한 맥락을 보였으나 수시모집이 정시모집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는 일부 선행연구[16,17]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점은 최근 대학 입학 전형과 선발기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집시기별 입학 전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일반적인 특징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대학 입학 전정보다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대학생활 이후의 관련 요인들이 학업 성취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 내의 제도적 물리적 인적 환경과 학생 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지적 기능의 발달이나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화되고 적응성을 지니는 인격 형성에 목적을 둔다[1]. 대학 입학전형이 다양화되면서 각 대학에서는 매년 입학 전후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고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양-전공 교과과정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황과 박[18]은 진로 준비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학생들일수록 학교생활을 잘한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 중 평균 3.18점이었고, 여자(3.17)보다는 남자(3.46)에서 높았고, 하위영역요인으로 개인정서적응은 남자(3.61), 여자(2.98)로 남자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년별 본포에서는 개인정서적응, 학업적응, 사회적응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대학환경적응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시전형에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여 김[8]과 오[9]의 연구보고와 유사하였다. 이는 같은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대학생활을 지각하는 성향이 다르며 특히 소속 대학이나 학과전공에서의 적응은 학교 제도나 시설 등 외적 요인, 진로 및 취업 전망 등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전체 대학생활적응 뿐만 아니라 학업적응, 대학환경적응이 높게 나타나서 치위생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고[19], 학점이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는 민과 이[12]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은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대학생들의 학업, 진로, 취업 선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자신의 학습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성별, 학업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여 남자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의미를 지닐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조절 능력 증진,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 대학 소속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학 차원에서 전반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특정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치위생학생 전체의 사례로 적용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연구도구 차이로 인한 정확성 결여, 단면연구인 점 등으로 인해 대학생 활적응 관련 요인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얻기는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대학생 활적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2. 학업성취도는 수시전형, 정시전형 양 군에서 비슷하였다.
3. 학년($p < .05$)이 올라갈수록, 수시전형($p < .01$)에서 대학환경적응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p < .01$), 학업적응($p < .05$), 대학환경적응($p < .01$)이 높아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의미를 지닐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조절 능력을 증진시키고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학 소속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학 차원에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S. H. Shin. (2017). A study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Motive to Select Dental Hygiene as Major and their Work Valu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7(5), 53-64. DOI : 10.13065/jksdh.2017.17.05.853
- [2] S. Y. Lee & Y. J. Kang. (2016). Influence of Instructor Trust on Learning Flow and Academic Achievement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6(5), 687-693. DOI : 10.13065/jksdh.2016.16.05.687
- [3] M. S. Choi. (2019). A Case Study on Flipped Learning Convergence in Dental Hygiene Major: focusing on learning aware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2), 252-263. DOI : 10.22156/CS4SMB.2019.9.12.252
- [4] B. N. Kim. (2011). *A Study on Difference Analysis of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by an Admission System*.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5] D. S. Kim. (2011). *A Study on Curriculum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 Based o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nd College Drop-outs*.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6] E. G. Song. (2007).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Academic Performance and College Achievements*.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7] H. G. Lee. (2000). *An Analysis between Entrance Test and Academic Score with Correlation Analysis focus 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 [8] Y. K. Kim. (2014). *The Effect of Self-discrepancy, Self-control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 to Campus Life in University*.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9] O. J. Yeon. (2016). *Major Dental Hygiene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The Relationship of College life*,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 [10] R. W. Baker & B. D. Sirky.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 *Journal of Counseli Psycho*, 31(2), 179-189. DOI : 10.1037/0022-0167.31.2.179
- [11] H. J. Kwon. (2007).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nd Scholastic Achievement with the University Environment Climate Perceptio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2] H. H. Min & H. J. Lee. (2020). Influence Factors of Positive Think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School Adjustment of Freshma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4), 124-132. DOI : 10.22156/CS4SMB.2020.10.04.124

- [13] H. J. Lee. (2017).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Academic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14] Naver Dictionary. (2020). Naver Dictionary(Online).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83962&cid=43667&categoryId=43667>
- [15] H. J. Shin. (2012). *Influence of Gender of University Students and Type of University Entrance on Scholastic Achievement and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16] A. N. Kim & S. H. Kim. (2009). An Analysis on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by College Admission Track.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9(2), 91-106.
- [17] H. S. Park, Y. S. Gil, S. W. Eo & S. Y. Kim. (2005). The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s for Different Selection Criteria via Linear Mixed Models.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18(1), 15-26. DOI : 10.5351/KJAS.2005.18.1.015
- [18] M. H. Hwang & H. Y. Park. (2005). Career Development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8(2), 157-176.
- [19] D. H. Kim. (2020). The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Subjective Happiness and Academic Resilience Dental Hygiene Stud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0), 246-252. DOI : 10.22156/CS4SMB.2020.10.10.246

신 선 행(Seon-Haeng Shin)

[정회원]



- 1989년 2월 : 경북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 2005년 2월 : 경북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01년 3월~현재 : 삼육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법규, 치과보험, 구강보건
- E-mail : haeng5355@hanmail.net